교수협의회의 법적 · 제도적 기구화에 대한 논의를…

이 영 수 | 교수신문 발행인

'우공이산(愚公移山)' 이란 『열자(列子)』, 탕문편(湯問篇)에 나오는 이야기로 원래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는 뜻이니,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한가지 일만 열심히 하면 마침내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한 말이다.

대학사회에서 이 고사성어에 적합한 예가 교수협의회여야 한다고 믿는다. 교수협의회(교수회 또는 평교수협의회)의 필요나 그 기능의 논의는 시기적으로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그 필요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정치 · 사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의 열기가 높았던 1980년대 후반이라 하겠다. 그러나 교수협의회가 대학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공식 기구로 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년 가까이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임의 기구로 남아 대학사회에 갈등을 낳고 있다.

어리석은 영감이 아닌 지혜와 경륜이 뛰어난 교수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사정은 어쩌면 우공이산의 고사가 대학사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이어서인지, 아니면 대학사회의 민주화나 투명성이 완전히 보장되고 실현되어서 교수협의회와 같은 기구가 필요 없는 사회이기 때문인지, 또는 대학사회의 민주화와 투명성의 필요성이 성숙되지 않아서인지 그저 안타깝고 놀라울 뿐이다. 교수협의회가 제도화되지 않은 이유로 교수사회의 노력이 산을 옮길 만큼 강하지 못했거나 결집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나 집단이 집요하게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힘이 더 강하게 작용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서로 대립되는 세력 또는 집단의 본질을 구명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사립학교법의 개정이나 교수협의회를 대학내 공식 기구로 제도화하는 데에도 크게는 정당간에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게는 대학내 구성원, 특히 교수사회와 학교법인 간에도 상당한 이견을 보이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교수협의회라는 기구가 대학 또는 대학을 둘러싼 집단들의 이익 추구 또는 이해 타산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인지, 대학의 발전과 자율성의 신장을 위한 대안으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그간 우리나라 대학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 결함, 의도적 전횡을 바로잡기 위하여 대학사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대학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 필연의 결과임에도 이렇게 대립되는 견해는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그 합리적 논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수 노조

의 설립과 추진도 이와 무관한 것인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수협의회의 필요성과 그 올바른 모습, 그리고 그에 따른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구성원 모두는 대학의 본질과 우리나라 대학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대학이 건전한 학문공동체 또는 교육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를 제시하고 그 각각의 전제가 주는 시사점을 교수협의회의 바른 모습 찾기에 두고자 한다.

몇 가지 전제와 그 시사

대학사회가 학문공동체 또는 교육공동체로서의 필요를 재음미하고 나아가 가능성의 영역을 찾아 바람직한 대학의 모습을 그려보기 위한 몇 가지 전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무릇 개개인의 삶도 그러하지만 대학인에게도 삶의 목적과 그 방법에는 깊이 가는 법과 넓게 가는 법이 있다. 깊이 가는 법은 명상과 고뇌의 연속으로 연구와 교육을 통해 독창적으로 주제를 품고 실천에 매진하는 길일 것이고,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길고 험난한 동굴 속으로 혼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래야 한발 한발 내딛는 긴장과 정신 집중의 쾌감, 결실에 대한 만족감과 익숙해짐으로 오는 재미를 누릴 수 있다. 이미 대학인에게 부여하는 학문의 자유, 교육권, 양심의 자유, 교수의 자율권 등은 깊이 가는 길의 보장이다.

반면에 넓게 가는 법은 정보와 지식의 교환으로 이루어지고 협조적으로 소재를 얻고 문제를 풀어가는 길일 것이다. 끝간 데 없이 넓게 펼쳐진 푸른 초원의 지평선을 향해 갈 때에는 누군가와 손잡고 가야 하며 그래야 동행의 즐거움과 나눔의 기쁨이 있다. 대학인들이 각종 기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사결정기관에 참여하여 그 결정과정에서 배움과 나눔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교수협의회는 제도적 틀로 넓게 가는 법을 담보로 하고 있다.

대학인들은 그 직분에 따라 두 가지 길 중 하나의 길을 택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느 한 길이 부과되기도 한다. 어쩌면 깊이와 넓이를 한 사람이 모두 갖추려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거나 어렵고 무모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오늘의 현실은 우리 대학 구성원에게 깊이와 넓이를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교수협의회의 회원이 되고, 보직을 맡아 일의 분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다.

깊이 가는 법과 넓게 가는 법은 무엇이며 이를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 대학인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의 물음을 첫 번째 전제로 삼고자 한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는 깊이 가는 길의 탐구와 연찬, 창조의 결실로 넓게 가는 길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나눔의 기쁨을 공유하는 아고라(Agora:광장)였으면 한다. 비록 대학사회가 광장의 무대로서의 제반 요건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학자와 교육자로서 교수와 학문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또한 대학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교수와 학생을 볼모로 삼는 대학운영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학인 모두는 깊이 가는 길과 넓게 가는 '신비로운 유혹'에 빠져들지 않으려는지 ……

둘째, 어떤 철학자는 전 세계적으로 시대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전환점' 또는 '물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오고 있는 인식의 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말들이 제기하고 있는 권위와 대중적 수용성은 대단하지만 한편으로는 변화의 다양한 차원들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전환점이나 물결

"
세상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오히려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대학은 다른 어떤 사회보다 변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대학의 진정한 자율성,
그것이 그래도 오늘까지 대학이 변화의 물결을 지혜롭게
타면서 난관을 헤치고 존속해 올 수 있었던 힘이다.
"

이라는 말들은 물론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복합적 인식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전환점을 돌아 전환하고 나면 뒤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건물의 모퉁이를 돌고 나면 그 때까지 진행하고 있던 길은 보이지 않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길만 눈에 들어온다. 여기서 전환이라는 말은 은유이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의식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 물결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뒷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낸다는 은유는 밀려간 물결의 의미를 대폭 축소하거나 삭제한다. 물결에 밀리고 밀리면서 서로 섞이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게 만든다.

인간의 의식이 새로움을 발견하고 새로움을 제시하여 단절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해도 인간의 삶은 연속적이다. 시대의 모퉁이를 돌아서는 전환의 시기에도 돌아서 가는 시간과 그 시간 속의 삶이 있으며, 그 삶이 반영하는 시대의 특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물결이 밀리고 밀리면서 섞이는 지점의 삶과 특성이 있다. 오늘날 그 특성을 혼합의 시대라고 일컫는다. 또한 혼합의 시대는 인식의 문제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삶과 행동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혼합의 시대에 학문공동체 또는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인 대학인은 어떤 인식과 삶과 행동이 우리 대학사회의 지표가 될 수 있는지의 물음을 또 다른 전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밤과 낮의 구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여명과 황혼을 보는 혜안이다. 그것은 밤과 낮처럼 분명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감동적이며 훨씬 더 흥미롭고 훨씬 더 다양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문제와 고민을 동반하지만 그 속에는 문제와 고민에 대한 해답의 가능성도 다양하게 들어 있다고 믿는다. 또한 섞임에 대한 혜안도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는 언제나 현재 속의 과거와 미래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세상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오히려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대학은 다른 어떤 사회보다 변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대학의 이념도 그러하고 중세 대학의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대학이란 이름이 주는, 그래도 보편적인 의의는 대학인 스스로 찾아서 길을 개척할 때 무엇인가 이루어 낸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대학의 진정한 자율성, 그것이 그래도 오늘까지 대학이 변화의 물결을 지혜롭게 타면서 난관을 헤치고 존속해 올 수 있었던 힘이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대학 개혁의 갈등과 문제들도 이러한 인식의 틀에서 재조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혼합의 시대에 교수협의회는 여명과 황혼을 함께 볼 수 있는 다양한 학문과 세대의 구성원들로부터 섞임의 시대의 특성과 성격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혜안을 드러내고 이에서 삶과 행동의 조화

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실험 무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수협의회의 필연성과 그 순기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으며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념 중 하나는 '열림'의 가치일 것이다.

열린 사회, 열린 마음, 열린 교육, 열린 지성, 열린 음악회, 열린 장터 등 책의 제목에서 공연이나 행사의 명칭에 이르기까지 열린 것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다. 열린 사회란 개개인이 개인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회를 말하고 있다. 즉, 자신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타자를 향하여 개방성을 지닌 개체들이 '우리'를 이루었을 때에 열린 사회는 그 결과로 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나'가 '너'를 거쳐 '우리'를 인식하고자 할 때에 '나-우리'의 이항대립 구조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나와 우리의 연결고리는 '너'인 것이다.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인 나, 너, 우리가 열린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를 세 번째 전제로 삼고자 한다.

포퍼(K.R.Popper)는 열린 사회가 그 적들을 모두 사형시키거나 오늘날 다수가 당연한 것처럼 추구하는 열림이 비판이 아닌 본질적 배타성을 가지고 닫힘을 대하는 열린 자세라면 그것은 '거짓 열림'이라고 주창한 것처럼 우리의 교육공동체인 대학사회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교수협의회나 교수협의회의 법적 · 제도적 기구화를 반대하는 세력이나 집단은 열린 자세를 지니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신화화와 탈신화화를 거듭하면서 역사와 사회는 발전하게 되며 인간 공동체가 내세우는 지향점에 대한 사회적 믿음과 그 믿음의 일상화는 신화를 창조하는 인간 특유의 전통이다. 신화는 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 주변에 관한 이야기이고 믿음이기 때문이다.

삶의 틀 안에서 조화 · 안정 · 질서를 지향하는 '닫힌 사회'가 전근대의 신화였다면 틀 안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틀 자체에 대한 부정의 시도 및 틀 밖의 다른 세계와의 관계 형성을 지향하는 열린 사회는 오늘날의 신화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대문화의 특성에 따른 역사적 선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화화의 능력은 인간에게 의식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여 인간 자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좀 더 활력 있는 휴머니즘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긍정적 기능을 갖는다. 반면에 신화의 부정적 기능은 의식의 지평을 넓히는 대신 '신화적 예언'의 틀 안으로 인간 의식을 가두어 두려는 기능을 하게 되며 이는 신화의 기술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고하기도 한다.

나아가서 열고 닫음의 모순적 공존관계를 감내하고 수없는 여닫이 운동에서 오는 고통을 참으며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는 사랑의 마음은 우리 대학사회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또한 열린 사회를 받쳐 주는 이성은 얼마나 합리적이고 교육적인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교수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고 대립되는 세력 또는 집단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학사회가 교육공동체 또는 학문공동체로서 활기찬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오늘과 같이 문화 예측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이상의 실현이나 사회의 개혁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열린 개체들로 이루어진 다원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의 형성 또는 가치의 실현은 개체들의 의식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와 병행하거나 이를 담보하는 법적 ·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분법(dichotomy)적 사고에 매몰되어

의식과 조건의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어쩌면 지난 세기는 조건의 정비가 의식의 변화를 선도하거나 수용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논리는 인간을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피조물로 간주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급기야는 새로운 휴머니즘의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심리학, 철학, 사회학 등 많은 학문 영역에서 신인본주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새로운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또는 건전한 대학문화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식과 조건의 갈등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와 갖추어야 할 의식 수준은 무엇이며 정비하여야 할 구조적 개선이나 마련하여야 할 제도적 장치의 규명을 마지막 전제로 삼고자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전제와 논의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타당하느냐의 여부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우선 대학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사회의 자정과 비판 기능을 위한 준거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 20여년 간 다양한 형태로 정착되어 있거나 많은 학교에서 교수협의회가 무력화 내지는 소멸되어 버린 상황에서 이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함께 하기를 바라는 제안에서이다.

이제 우리는 교수협의회의 공과도 충분히 경험하였고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학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그동안 교수단체인 전국사립대학 교수협의회 연합회(사교련)나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단위대학의 교수협의회는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교수협의회의 대학내 공식 기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거의 20년에 걸쳐 시도했으나 아직도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난날의 노력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의 발전을 위한 몸부림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시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생각된다.

2003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 정부의 출현과 함께 교수협의회의 활기찬 부활을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하여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입법기관인 국회, 학교법인, 교수사회와 대학인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에 대한 사회의 기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큰 현시점에서 '대학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라는 명제를 우리는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유예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 한 발 물러서서 묘안을 찾아야 하고 이를 공동의 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No experiment, no progress' 란 말을 음미하면서 대학의 변신을 기대해 본다.

이영수

서울대 교육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인디아나대 대학원에서 성인교육을 전공하고, 단국대 교육학과에서 교육행정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경기대 교수협의회장 및 전국사립대학 교수협의회 연합회장, 한성학원 임시 이사, 한국청소년정책학회장을 역임하였다. 현 교수신문사 발행인으로서 서원학원 임시이사로 재직 중이다.